

순천드라마촬영장, 설맞이 '복(福)합문화공간'으로 변신

댕댕이랑 교복 입고 추억 여행 떠나요!

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를 맞아 순천드라마촬영장을 방문하는 전 세대와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 연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0-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생생하게 재현한 드라마촬영장만의 독특한 정취를 바탕으로, 풍성한 공연과 전통놀이는 물론 최근 트렌드에 맞춘 반려동물 특화 이벤트를 더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설 명절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펫팹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어 눈길을 끈다. 반려견과 함께 복고풍 교복을 맞춰 입고 촬영장 골목을 누비는 이색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반려동물용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DIY 체험존도 운영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전문 작가가 촬영하는 '반려견 동반 흑백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성스럽게 구성된 '반려견 웰컴 키트'를 증정해 반려가족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명절의 흥을 돋우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도 이어진다. 연휴 기간 내내 순양극장에서는 7080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악극단 공연과 감성적인 밴드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촬영장 곳곳에서는 고무줄놀이, 대형 윷놀이, 공기놀이 등 부모 세대에겐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를 주는 전통놀이가 상시 운영된다. 특히 달동네



내리막길을 활용한 설매 체험은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날의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겨울 추위를 녹여줄 따끈한 어묵과 군고구마를 비롯해 달고나, 쫄면 등 추억의 간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는 부모님부터 아이들, 그리고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드라마촬영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완도군, 중국 적벽시와 교류 본격화

해양, 관광, 문화 등 협력 강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적벽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적벽시 방문은 해양,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 협약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적벽시 동팡핑 시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도시는 업무 협약으로 ▲행정 교류·협력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산업·경제 분야 협력 ▲기업인, 체육인, 청소년 등 방문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 수산업 등 완도가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적벽시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 대표단은 중국 대표 ICT 기업인 텐센트(Tencent) 관계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 웰니스 관광, 플랫폼 기반 관광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양류동 고진&한중 우호 교류의 집'을 찾아 완도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만통연' 등의 견학·시찰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 문화, 경제, 산업 사례를 접했다. 군은 적벽시 방문을 계기로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적벽시 방문을 계기로 지역 산업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적벽시는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과 신성장 에너지, 스마트 제조업 등이 발전한 곳이다. 적벽시의 산업 기관인 후베이성은 인구 6천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내 34개 성 중 14번째로 큰 지역으로 중부권 정치·경제·교통의 중심지이다.

완도/장성우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원 대상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 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

담양군, 청년 문화복지비 25만 원 지원한다

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한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문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문화·여가 및 자기 계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남 도내에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생활개선회, 떡국 재료 나눔 행사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회장 박수희)는 지난 2월 5일, 새해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떡국떡과 계란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떡국떡과 계란 등 식재료를 정성껏 준비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등 70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새해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가 그동안 지속해 왔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활동의 하나로, 농촌 여성 단체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진도/오재영 기자



'찾아가는 해보면' 경로당 순회 좌담회 실시

전남 함평군 해보면은 "지난 6일부터 마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로당 좌담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좌담회는 정영심 해보면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참여해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즉각적인 설명과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의견 ▲생활 환경 개선 요청 ▲복지 서비스 애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장흥군, '청렴 실천 캠페인' 전개하고 청렴주의보 발령

장흥군이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앞에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직자의 청렴의무 준수 의지를 다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군청 공직자 150여 명이 참여해 설 명절 기간 선물 허용 범위 등 공직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부적절한 금품·향응 등 수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장흥군은 청렴 실천 캠페인과 더불어 설 명절 기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